

2021년도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
- 회의일시 : 2021. 10 25(월) 15:00
- 회의장소 : 대학로 예술가의집 회의실

2021년도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61작품으로, 초연부
문 42작품, 재연부문 19작품이다.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(90%), 사업목
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(10%)에 두었으며, 다양한 형태(작품성향, 구성
등)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(블라인드심사),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
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, 최종작품
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.

ARKO한국창작음악제에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작품이 출품되는 것은 바
람직한 현상이다. 그러나 꽤 큰 비중의 작품들이 관현악곡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덜
된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. 즉 표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, 악
기에 관한 지식, 악보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방법에 관한 생각 등이 부족한것이
스코어에 여실히 드러났다. 뿐만 아니라, 관현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
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음악이 갖는 서정성이나 음악적 전개, 발전에 관한
사고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.

그 중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 선정이 쉽지 않았다.

두 곡의 관현악 초연작품은 대조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다. 한국은 소박하나 진지
하고 짜임새가 있으며, 다른 한 곡은 적극적이고 화려하며 표현의 폭이 넓다. 재연에
서는 두곡의 협주곡이 선정되었고 특히 하모니카 협주곡은 그 참신함과 함께 작곡가
와 연주자간의 치밀한 소통이 돋보이는 작품이다.

여러 심의 위원들의 의견으로 모아 최종 선정된 작품들의 연주를 통해 우리나라 관
현악 작품의 창작과 연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.

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